

전주시,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 총력

운동욱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 행안부 찾아 2026~2027년도 6개 사업 383억원 지원 건의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관련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운동욱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오는 2026년과 2027년에 추진할 6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총 383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시장은 내년도에 추진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건에 대한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 오는 2027년에 추진될 예정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건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내년도 사업 신청 시



운동욱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오는 2026년과 2027년에 추진할 6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총 383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신청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국비 보조를

통해 8개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를 통해 주거지역과 밀접하게 위치한 재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침수·유실·붕괴 등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신규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운동욱 전 부시장은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우리 생활 주변 재해위험요소를 없애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이끄는 효성첨단소재(주)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효성첨단소재, 전주함께장터 동참

전주시에 프로젝트 추진 위한 기부금 1000만원 전달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이끄는 효성첨단소재(주)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전주시와 효성첨단소재(주)는 지난 9일 전주시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송주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함께장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효성첨단소재(주)는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효성첨단소재(주)의 기부금은 전주함께장터의 취지에 맞춰 팔복동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이 이끄는 소비와 나눔 가치 △혁신공공기관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전주시 자생

단체·봉사단체의 전통시장 정보기 △노동자를 위한 간식 응원단 '함께 브런치'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효성첨단소재(주) 관계자는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에 큰 희망이 돼 기업과 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나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범기 시장은 “효성첨단소재(주)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며 책임 있는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첨단소재(주)는 효성의 산업자재 부문이 인적분할해 지난 2018년 설립된 효성의 계열사로 현재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고강도 산업용 원사 및 직물과 강선 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탄소섬유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이다.

/권희성 기자

고품질 SW 개발 지원으로 지역 ICT/SW기업 도약 견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SW품질 전담센터 통해 컨설팅·테스팅 서비스 지원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은 전북지역 중소 ICT/SW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디지털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5년 고품질 SW 개발 컨설팅 및 테스트링 무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전북)사업' 중 '전북 지역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품질관리, 인증, 개발환경 개선 등 다양한 품질 요소를 중심으로 컨설팅과 테스트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보내 기업의 고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경

질 SW제품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내지역 유일의 SW품질 전담 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문인력을 통해 지역 ICT/SW 기업을 대상으로 SW 제품의 품질 컨설팅과 테스

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컨설팅 지원 분야는 △개발 프로세스 개선 △인증 취득 지원(GS, VSE, CMMI, SPICE 등) △AI 활용 업무 개선 △품질관리 체계 개선 △개발 환경 개선 △품질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SW 품질 향상 전반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테스트링 지원 분야는 △GS 인증 평가 모듈 기반 테스트링 △웹 취약점/호환성 및 접근성 진단 △정적 분석 및 성능 테스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본사를 둔 ICT/SW 중소기업으로, 모든 컨설팅

및 테스트링 지원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진흥원은 필요시 내부 상담 인력과 전문가 자문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진흥원 누리집(www.jca.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부 양식을 참고해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시 가능하다.

허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중소기업이 겪는 품질관리 인력·예산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품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다움교육 지원 위한 전통문화연수 성료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허대중)는 총 2회에 걸쳐 전주전통문화연수원과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진 '2025 전주다움교육 지원'을 위한 전통문화연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원들이 선비문화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한 후 그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지난날 11일과 9일 등 총 2차례에 걸쳐 전주 지역 유·초·중학교 교원 및 업무 관계자 각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수는 △의관정제(담상관복 착용) △향음주례(선비의 술 마시는 예법) △향사례(선비들의 활쏘기 의례) △전주삼미체험(전주의 대표 음식 체험) △공예체험(한지꽃 다류저 만들기 및 전통 자기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통해 선비들의 예절과 심신 수련을 직접 경험했으며, 공예체험을 통해 자랑스러운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느끼기도 했다.

허대중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는 2025 전주다움교육 지원을 위한 전통문화연수를 진행했다.

문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교육 현

/권희성 기자

전주시설관리공단, 조촌동 취약 가구에 물품 전달

전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연상)은 지난 8일, 덕진구 조촌동주민센터(동장 박정환)를 찾아 관내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30만 원 상당의 라면 6박스 및 30 톤화장지 6개를 전달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전주함께장터'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챙기면서 두 배의 행복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전달받은 라면과 화장지는 조촌동 관내 나들가게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촌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을 선정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연상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며 의미 있는 소비를 통해 조촌동 독거 어르신들이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제정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